

# 학교 건설공사 현장 산업재해 예방한다

군산동산중 이전 신축·고창도서관 증축 등  
도교육청, 16일까지 도내 현장 10곳 합동점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규모가 큰 건설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안전보건공단과 도교육청 중대재해예방·시설담당·지역교육지원청 및 학교 담당자가 모두 참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배우고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 2일 전주자곡초와

전주조촌초를 시작으로 오는 16일까지 규모가 큰 건설공사 현장 10개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대상은 △군산동산중 이전 신축 공사 △(가칭)김제형소년복합문화공간 신축 공사 △전북교육청교직원수련원 독립형 콘도 증축 공사 △고창도서관 증축 공사 △군산유아체육관 신축 공사 등이다.

한편 점검 후 현장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개선방안을 안내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한 현장은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서기 인성건강과장은 "학교 공사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전문가로부터 현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앞으로도 일선 교육기관과 학교의 안전관리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협력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8일 김제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한 서거석 교육감이 수험생들을 응원하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 “잘해주셔서 고마워요... 건강 관리 유의해주길”

서거석 교육감, 수능 앞둔 김제여고 3학년 수험생들 격려

서거석 교육감이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서 교육감은 8일 김제여자고등학교를 방문, 수험생들을 응원하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방문은 김제여고 2학년 지세빈 학생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지세빈 학생은 “긴장하고 지쳐있는 고3 언니들을 위해 교육감님께서 응원

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이에 서 교육감이 화답하면서 이뤄졌다. 서 교육감은 김제여고 3학년 교실을 둘러본 후, 급식실 앞에서 수험생들에게 일일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서 교육감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학업에 매진하는 과정에서 숭한 어려움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해줘 고맙다”면서 “남은 9일 동안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함께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옆 친구들 그리고 늘 응원하고 지지를 보내준 학교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수능이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도교육청, 인권교육 담당교사 인권 감수성 향상 도모

CGV 영화관서 다큐멘터리 ‘학교 가는 길’ 함께 관람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인권교육 담당교사 및 교직원들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CGV 전주효자점에서 이뤄진 인권교육 담당교사 및 교직원 인권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은 다큐멘터리 ‘학교 가는 길’을 함께 관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영화 관람 후에는 김정인 감독과 출연 학부모 2인을 초대해 ‘길’ 강연회가 이어졌다. 이날은 서울 강서구의 특수학교인 서진학교가 설립되는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영화로, 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민들

을 설득하고 세상과 맞서 싸우는 어머니들의 용기있는 모습을 담은 영화다. 민주시민교육과 정성환 과장은 “영화 ‘학교 가는 길’을 통해 교직원들의 인권 감수성을 함양시키고, 나아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산다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서 교육감, 여성유권자 전북연맹과 간담회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7일 오후 (사)한국여성유권자전북연맹과 간담회를 갖고 유권자로서 청소년의 주권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라은희 회장을 비롯해 이경신 부회장, 이희자 전주지부회장, 문보경 익산지부회장, 김은순 김제지부회장, 조영희·나환희·장난희·김영애·안정수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라은희 회장은 차세대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한국여성유권자 전북청소년연맹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라 회장은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고등학생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청소년유권자 단체 등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올바른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모나리, 사회문제 토론회 개최, 소외계층 지원 활동 등 청소년들이 올바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이에 서 교육감은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사회성을 키울 수 있다. 현재 학교에서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면서 “그 일환으로 내년 신규사업으로 청소년단체 12곳에 운영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 “도교육청 조직개편안, 원점서 재논의를”

도내 9개 교육단체

“영남대 수행 조직진단 결과 구체적으로 공개한 바 없어”

전북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 전공노 전북교육청지부 등 도내 9개 단체는 8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교육청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모든 교육단체와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이들은 전북교육청의 조직개편안 추진이 비민주적으로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리싸움’이나 ‘세력다툼’으로 비치는 것에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필요한 갈등은 사전에 아무런 설명이나, 의견수렴 과정 없이 조직개편안을 추진한 전북교육청의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영남대학교가 수행했던 ‘전라북도교육청 조직진단 및 개편방안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공개된 바 없고, 더군다나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용역을 실시했는데도 보고회조차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형식적인 의견제출 기간이 끝난 후 전북도의회가 ‘교육단체들과 소통하지 않았다’고 전북교육청을 질타하자, 10월 27일 부라부라 교육단체 대표들을 모아놓고 협의회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원 조례



전교조 전북지부, 전공노 전북교육청지부 등 도내 9개 교육단체는 8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교육청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모든 교육단체와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에서 일반직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은 개방형 임기제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벌어진 착시현상”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교육연구·교수학습지원 교육정책 연구·개발을 해야 하는 교육연구정보원장을 외부인사로 하겠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이를 포함 현재 존재하는 모든 개방형 직위에 대한 적합성 여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교육주체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던 점, 입법예고 기간이 짧고 충분한 소통이 없었던 점, 각

과와 팀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는 점, 연구용역의 결과 보고도 다뤄지지 않은 점 등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전북교육청은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사과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언급하면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 조례에 대한 의견제출은 단 6일간 진행됐으며, 심지어 일선 학교와 소속기관에는 공문 시행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은성 기자

## 차세대 지질과학자 학술대회 ‘우수’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학부생들, 우수 포스터발표상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임소연, 이가현, 박종철, 윤지원, 양효주 학부생이 최근 열린 제5회 차세대 지질과학자 학술대회에서 우수 포스터발표상을 수상했다고 8일 전했다. 이 대회는 대한지질학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IGC 2024 세계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한 학술대회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 학생들은 전주 시 오송지 지하수 지표수 혼합대에서의 수질변화 특성”을 주제로 발표해 지질과학에 대한 높은 이해와 탐구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학생들은 지하수와 지표수 사이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물순환의 관점에서 다양한 물리적·생화학적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하지만 국내에서 지하수-지표수 혼합대에서의 수질변화에 대한 연구가 없음을 인지하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진성욱 교수의 지도하에 전북대 인근에 위치한 오송지를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연구를 수행했다. 오송지에서 물 시료를 다양한 샘플링 방법으로 채취해 깊이별 지하화 변화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하수-지표수 혼합대에서 지하수가 지표수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했다.

이 연구를 통해 오송지의 지표수는 강수의 영향보다 오랜 시간 대수층에 머물며 유입된 지하수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과 동시에 지하수와 지표수의 혼합대에서 산화-환원 및 용해-침전 반응이 개별 수질인자 특성을 결정하는 요인임을 규명했다.

전주대, 교육부 산학연협력 전문가 조사 DB 구축 간담회

전주대학교 IINC 3.0 사업단(단장 주승)은 8일 공학 2관에서 실무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부 산학연협력 전문가 조사 DB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 대학과 기업의 산학연협력 전문가 조사를 통해 (가칭)산학인재넷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획 및 분석, 통계분석,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교육 및 교육콘텐츠 개발, 산학협력단 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주승 단장은 “이번 간담회 이후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산학인재넷을 통해 보다 더 체계적인 산학연 협력 및 산학교육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3D 프린팅 드론영상 등 콘텐츠 시상식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정상모)는 8일 AI뉴테크실에서 4차 산업혁명 창의융합 인재양성을 위한 3D 프린팅, 드론영상 및 VR/AR 콘텐츠 콘테스트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은 졸업작품전 2022 PISON EXPO에 전시됐던 25개의 작품 중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 우수한 작품들을 선정한 후에 진행됐다.

4차 산업혁명 창의융합 인재양성을 위한 3D 프린팅, 드론영상 및 VR/AR 콘텐츠 콘테스트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경진대회에는 지적특목학과 컴퓨터정보과 및 전자과 재학생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25개의 작품들 중 3D 프린팅 부문 수상작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박혀있는 바둑+체스판과, 악을 복용해야 할 때를 놓치는 치매환자들을 위한 지능형 알약 디스펜서 등 우수한 작품들을 제작해 호응을 얻었다.

/장은성 기자

## 학생 서비스 만족도 1위

전북대, 4년 연속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2022 서비스품질지수 평가에서 지방 국립대 가운데 1위에 올랐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전북대는 4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모두 7번째 1위를 했다.

이에 따르면 이 평가는 한국표준협회가 대학별로 1학년을 제외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에 대한 만족도를 일대일 개별면접과 인터넷 패널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서비스 결과 품질과 서비스 상호작용, 서비스 환경, 사회적 품질 등으로 나눠 정확성과 전문성, 진정성, 친절성, 적극성, 이용편의성, 외형성, 사회적 가치 등을 세부적으로 평가했다.

전북대는 이 평가에서 8개 세부

분야에서 모두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고 이 중 6개 분야가 1위를 차지하는 등 83점의 평균 점수를 받았다. 지방 국립대 평균은 79.4점이다. 전북대가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은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을 위한 대학의 의지 학생 지원에 대한 투자가 많았다. 또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을 위해 혁신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학생 역량 강화,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진로지원 프로그램 구축, 지역기업과 연계한 대학-기업 상생 발전 등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전북대는 국가 거점국립대학 간 학사교류를 주도하며 교육의 공유를 실천하는 등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장은성 기자